

강릉아산병원 세계뇌졸중기구 'WSO 엔젤스 어워드' 수상



양구현 강릉아산병원 뇌졸중센터장(뒷줄 왼쪽에서 5번째)과 관련 의료진들.

강릉아산병원은 2월 3일 세계뇌졸중기구(WSO)가 주관하

는 2024년 4분기 'WSO 엔젤스 어워드'에서 최고 등급인 다이아몬드상을 수상했다. 강릉아산병원은 지난해 2분기 평가에 이어 3회 연속 다이아몬드상에 선정돼 뇌졸중 치료 체계 우수성을 알렸다.

'WSO 엔젤스 어워드'는 국제 뇌졸중 연구의 최상위 기관인 세계뇌졸중기구에서 분기별로 전 세계 병원의 뇌졸중 치료 데이터를 평가해 뛰어난 성과를 보인 병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평가는 환자 도착부터 치료까지 소요된 시간, 뇌졸중 발생 건 중 재개통 치료 시술 비율, 뇌졸중 의심 환자 중 CT 또는 MRI 영상 검사 시행 비율 등 총 10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강릉아산병원 뇌졸중센터는 강원·영동지역 뇌혈관질환 책임병원으로서 지역 내 뇌혈관질환 전문가들과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해 응급·중증 뇌혈관질환 환자의 골든타임을 사수하고 있다.

정읍아산병원 정읍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실시



정읍아산병원은 올해 상반기 중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한다. 정읍시에 거주 중인 51세~70세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특수건강검진은 농사를 지으며 생기기 쉬운 질환을 미리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정읍시가 2년 주기로 지원하는 건강검진이다. 검진 항목으로는 근골격계 질환, 심혈관계 질환, 골절·손상 위험도, 폐활량 검사, 농약중독 검사 등이 포함된다. 단순 건강 상태 확인을 넘어 농작업 질환의 사전 예방과 의료 상담까지 포함해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덕아산병원 소아청소년·산부인과 야간 연장진료 시행



영덕아산병원은 'ONE-hour 진료체계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2월 24일부터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야간 연장진료를 시행하고 있다.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2회에 걸쳐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운영하며, 처방약 조제를 위해 인근의 약국도 동시에 연장 운영된다.

ONE-hour 진료체계 구축 사업은 영덕군이 양질의 필수 의료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영덕아산병원은 이번 야간 연장진료를 통해 군내 출산 장려와 저출생 문제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